

【도쿄=연합】 미야자와 기이치 일본 수상은 오는 16일 한국 방문에서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죄할 뜻을 갖고 있다고 일본 <산케이신문>이 10일 일본 정부소식통을 빌려 보도했다.